

부상도 막지 못한 양학선의 '고향 광주 사랑' 통증 참고 체전 3연패

광주 금 33·은 42·동 66·전남 금 38·은 43·동 43



“고향인 광주를 위해 참고 뛰었습니다” 전국체전 3연패에 성공한 ‘도마의 신’ 양학선(21·광주·한체대)이 고향 광주를 향한 진한 사랑을 드러냈다.

양학선은 23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5.112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1일 열린 예선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었던 양학선은 이날 통증을 참고 결선에 출전,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4회 전국 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3일 광주·전남선수단은 도마를 비롯해 양궁, 볼링, 레슬링, 육상 등에서 금빛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여대 양궁팀 안세진·김소연·이소현(이상 4년)·김혜진(1년) 조는 양궁종목 마지막 날 여자대학부 단체전 경기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19일 6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진은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시청 양궁팀(기보배·박정진·이특영·최남욱)과 광주체고 양



‘도마의 신’ 양학선이 23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종목별 결승 도마 경기에 출전해 1차 시기 공중 회전을 한 뒤 착지하고 있다. 양학선은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5.112점을 획득하며 3연패를 달성했다. 양학선이 도약하는 모습을 다중촬영했다. /연합뉴스

궁팀(김은영·김지애·이수진·정수라)은 여자 일반부와 여자 고등부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다관왕도 탄생했다. 볼링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 3년)은 4관왕(개인전·3인조·5인조·마스터즈) 타이틀과 함께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또 최복음(광양시

청)과 김동욱(고흥과학산업고 1년)도 3관왕을 기록했다. 최복음은 남자일반부 마스터즈 종목을 5연패하는 기업을 토했다.

광주 박성백(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남자일반부 40km포인트 레이스를 석권한데 이어 개인도로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도 소프트볼 광주 명진고 팀이 서울 신정여상과 여고부 결

승에서 격돌해 5-16으로 콜드패 했고, 배구 목포여상도 수원 전산여고과 여고부 결승에서 겨워 1-3으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23일 현재(오후 7시 기준) 광주는 금 33, 은 42, 동 66, 전남은 금 38, 은 43, 동 43개를 획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대리그 결승 진출팀 각오

㉠ 천황리그 (팔도 참오리 VS 자연환경)



탄탄한 팀 워크·집중력으로 타이틀 방어

◇팔도 참오리(대표 양준태)

광산야구연합회 소속의 '강호' 팔도 참오리의 가장 큰 무기는 팀 워크다. 4강을 목표로 했던 지난 대회에서도 뛰어난 팀워크와 집중력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운동용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직장생활에 활력을 찾았던 이들. 이제는 실력까지 겸비한 팀이 됐다.

매경기 최선을 다한 승부로 어느새 마지막 무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결승에서 만났던 자연환경이 다시 이들의 상대가 됐다.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 수호와 이들이 꿈꾸는 '사회인 야구 최고의 야구단'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단장 : 이승열 ▲감독:양준태 ▲총무:박선주 ▲선수:정승환 최준호 김경호 김도국 고현우 양명준 송승달 손근 강기석 오경완 성기영 송치영 유영재 차정환



“두번의 좌절은 없다”... 복수혈전 준비

◇자연환경(대표 정성현)

두 번의 좌절은 없다. 아마야구인들의 패기와 열정, 실력까지 빠지지 않는 젊고 활기찬 분위기의 팀이다. 각종대회에서 우승 단골 손님으로 등극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지난 가을잔치에서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팔도참오리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자연환경. 이번 결승전 상대로 팔도참오리다. 1년 만의 리턴 매치 잘짜여진 타순과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든든한 안방마님 정성현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그라운드를 날아다니는 즐거움 야구를 펼치고 있는 자연환경의 '복수혈전'이 펼쳐진다.

◇단장:백규식 ▲감독:정성현 ▲총무:오창호 ▲선수: 허용석 김광수 김동수 강정욱 김영권 류영광 박경중 박래준 박철준 서재근 조훈풍 최용희

㉡ 지왕리그 (NH 디스크스 VS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하니된 농협인’ 새로운 우승역사 도전

◇NH 디스크스(대표 김영두)

광주지역 농협인들이 야구로 하나가 됐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디스크스는 '아저씨'에게 새로운 인생이 됐다. 연령층이 높은 팀이지만 마음만은 청춘. 근력은 떨어지지만 야구 열정만은 어느 팀 못지 않은 최고의 팀이다.

야구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짜릿한 가을 잔치다. 열정과 재미로 시작했던 야구에 슬슬 실력이 붙어가고 있다. 사회인 야구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여했던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추억을 넘어 디스크스의 새로운 우승 역사에 도전한다.

◇감독:김영두 ▲선수:강기철 강요일 구상봉 김서원 김원 김태호 김한철 노세훈 박상삼 박상현 선주완 안승평 이동훈 최순홍 조경영 조재현 최귀환 김만철 서형선 심정진



“3년간의 야구열정...이제는 결실 맺을 것”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 전용환)

2010년 10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후원 속에 탄생했다. 2013년 10월,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무등기 야구대회 결승을 위해 야구의 매카 무등경기장 그라운드를 밟게 된다.

이들이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해보고 싶어서, 야구가 좋아서 만난 광범한 사람들이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3년의 시간 속에 야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더해졌다.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팀.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다.

◇감독:김선도 ▲경기이사:전용환 ▲선수: 손석민 박종산 신병철 양동화 임현 민재용 박재영 김영택 이범석 이대수 김래욱 김용표 이승은 윤인상 김윤지 김재중 장병웅 최재춘 윤상연

㉢ 인왕리그 (페가수스 VS 대한철강)



“웃고 즐기는 야구로 가을 전설 쓰겠다”

◇페가수스(대표 임창일)

10년 이상의 시간, 페가수스라는 이름으로 만든 추억이 많다. 거침없는 질주로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함께 땀을 흘리며 끈끈한 우정을 쌓기도 했다.

시간과 노력은 페가수스를 팀워크가 좋은 짜임새 있는 야구단으로 만들었다. 웃고 즐기는 야구를 꿈꾸는 페가수스의 2013 무등기 유쾌한 마지막 승부다.

무등기와의 인연도 특별하다. 2011년 초대 대회에서 천황리그를 제패했던 페가수스가 이번 가을 인왕리그의 정상을 두드린다.

◇감독:임창일 ▲선수:정동준 김형학 박상태 이석우 김상호 김희욱 염원섭 안범모 남정우 한승오 김경표 김현진 박용표



작은 걸음이 큰 결실로... 무등기 주인공될 것

◇대한철강(대표 김진형)

2010년 가을이 이들의 첫 걸음이었다. 일미파닉스로 출발을 했던 대한철강은 동료들 넘어 형제라는 마음으로 뭉쳐진 팀이다.

2011 광주베이스볼리그 토요 3부에서 우승을 하며 2012년 토요2부로 승격했다. 2012년에는 광주베이스볼리그 일요일리그에도 참가해 토요2부 준우승, 일요일3부 우승을 달성하며 조금씩 사회인 야구계에 이름을 알렸다. 올 시즌은 대한철강야구단으로 새 출발을 한 해다. 새 이름으로 가을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들의 바람.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작은 걸음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대한철강의 마음이 무등경기장 그라운드로 향해 있다.

◇감독:김진형 ▲선수:곽현영 김기정 김병호 김상수 김보성 김우람 김태호 김현철 김효동 문성욱 박주남 박태희 위동철 이상선 이종석 이진행 정광식 정기준 정영수 주기석 최윤준 최정재

㉣ 호남리그 (화순에슬레틱스 VS 버팔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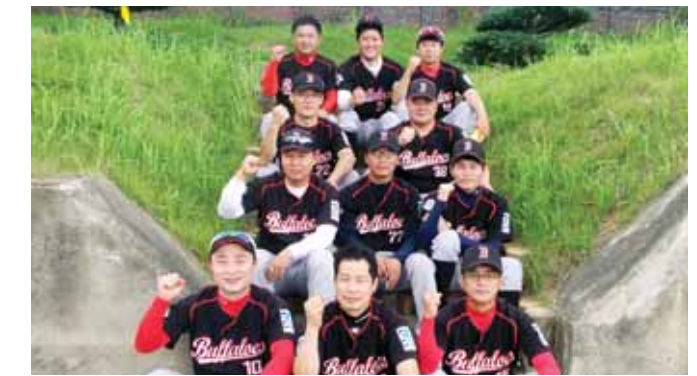
디펜딩챔피언 이름으로 또 한번 우승 도전

◇화순에슬레틱스(대표 이행석)

실력보다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뛰어난 팀이라고 말하지만 그라운드를 총횡무진 누비는 소문만 강팀이다. 화순에슬레틱스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구 열정과 팀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며 강팀의 면모를 갖췄다.

이들이 흘린 땀의 결과는 무등기 우승으로 돌아왔다. 2012 시즌 천·지·인왕리그에 이어 신설됐던 호남리그(당시 전남리그)의 초대 챔피언이 화순에슬레틱스다. 3회 8점을 뽑아냈던 폭발적인 타격, 든든한 뒷심으로 정상을 밟았던 이들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우승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감독:이행석 ▲선수:유영복 최주성 이철규 박원식 손운수 이상현 김경태 정진수 이승룡 이상원 정인 류세환 나경호 김성철 선영수 박세운 이정문 윤관 광태영 천재형



1990년 창단 역사의 팀 답게 정상 오른다

◇버팔로즈(대표 박영일)

1990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의 버팔로즈. 역사의 팀답게 베테랑들이 가을잔치의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추어의 패기와 베테랑의 노련함을 더한 마지막 승부 '우승의 영광 재현'이 이들의 목표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의 팀이지만 무등기의 역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11년 첫 대회에서는 결승을 앞에 두고 이들의 질주가 멈췄다. 아쉬움으로 준비했던 지난 대회에서는 1회전 패배라는 쓴 맛을 봤다. 아쉬움으로 돌아서야 했던 지난 가을, 패배의 실욕을 위해 버리고 버린 무등기 무대다.

무등기 정상에서 또 다른 버팔로즈의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다. ◇감독:이윤근 ▲총무:박영일 ▲선수:김철희 안창우 김휴천 김영석 정현재 이기호 최성훈 이동욱 박정일 선준우 이명기 김동현 이동욱 김요섭